

# 여러 민족 손잡고 민족음식문화 꽃피워가다

### 장춘조선족부녀협회 중화민족 전통요리 전시활동 펼쳐



여러 민족 대표들이 문호실 회장 (왼쪽 세번째) 과 함께 비빔밥을 만들고 있다. / 정현관기자

“비빔밥을 한번 직접 비벼서 먹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져 기쁩니다.” 조선족 앞치마를 두른 채 급방 비빔밥을 비빈 김립성몽골족문화경제촉진회 파음하서격 회장은 환한 얼굴이다.

“옆에서 김밥말기를 지도해준 조선족 여성분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김밥이 좀 굵어진 것 같습니다.” 장춘시만족문화촉진회 관대우 회장은 이렇게 말하며 빙그레 웃는다.

“김치가 건강식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치에 양념이 많이 들어가네요. 정성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장춘시시버족문화촉진회 비서장 양운홍

은 자신이 담근 김치를 한조각 찢어 맛본다.

5월 18일, 장춘조선족부녀협회가 장춘시조선족근중예술평 다기능홀에서 펼친 중화민족 전통요리 전시활동에서 비빔밥 비빔기, 김밥말기, 김치 담그기를 해본 다민족 대표들의 체험담이다.

장춘조선족부녀협회는 올해 협회 설립 35주년을 맞으며 이날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민족문화를 발양하자’는 주제로 여러 민족 전통요리 전시활동을 펼쳤다.

김립성 및 장춘시 해당 부문 지도일꾼들이 활동에 참석했고 김립성조선

족경제과학기술진흥총회와 김립성몽골족문화경제촉진회, 장춘시민족단결진보촉진회, 장춘시만족문화촉진회, 장춘시몽골족문화촉진회, 장춘시시버족문화촉진회 등 여러 소수민족 사회단체 대표와 회원, 장춘시회족소학교 대표, 장춘조선족부녀협회 회장단과 회원들이 전시자로 나섰다.

여러 민족 참가자 100여명은 전통복장을 펼쳐입고 각 민족의 전통음식을 비롯한 중화민족 전통요리 46가지를 전시하고 식자재와 제작 과정을 일일이 소개했다.

“유향(油香)은 회족들이 즐겨 먹는 전통음식입니다. 밀가루와 기름,

효모가루, 소금을 사용해 물로 반죽을 한 후 닭알, 유유, 검은깨 등을 넣고 만듭니다. 주로 개재절(开斋节)이나 경사가 난 날에 먹지요. 소고기튀김(炸松肉)과 소자개(烧子盖)도 전통적인 청진(清真) 식품인데 소고기를 주요 식자재로 만들지요. 소고기튀김은 아이들이 특별히 즐겨 먹습니다.” 회족 여성 한추국의 설명이다.

여러 민족들은 주로 본 민족의 대표적인 전통음식을 전시했다. 조선족들은 김치, 김밥, 달떡, 찰떡, 된장국, 추어탕, 깍두기, 깨알잔지, 파짬지 등을 전시하고 만족들은 사치마(沙琪玛), 설령탕(牛猪烩菜)을 전시했으며 몽골족은 몽골족술차(蒙古族锅茶), 육포, 유두부를 전시하고 시버족은 시버족물고기요리, 화화채(花花菜), 교채고추장(光莱辣子酱), 시버족떡을 전시했다. 뿐만 아니라 중화민족 전통요리인 미라탕, 칠색춘병(春饼), 오색물만두, 탕수육(锅包肉), 완자튀김 등도 전시했다.

전시활동이 끝난 후 여러 민족들은 한자리에 모여앉아 전통요리를 함께 나눠먹으며 민족단결의 정을 나누고 중화민족의 음식문화를 널리 발양해나가기로 약속했다.

장춘조선족부녀협회 문호실 회장은 “김립성 및 장춘시 해당 부문의 지도 아래 전에 우리 협회는 여러 민족들과 함께 문화체육활동을 펼쳤었다. 앞으로도 여러 민족들과 교류, 래왕, 융합을 통해 음식문화뿐만 아니라 손잡고 더 많은 새로운 불꽃을 피워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박명화 정현관 기자

## 연변 여러 단위 구강교정 공익과학보급 무료진료 전개



5월 15일, 연변과학기술협회에서 주최하고 연변대학부속병원(연변병원) 구강과와 연길시노블구강병원에서 주관한 중국·연변 2024년 전국 과학기술자의 날 및 세계 교정건강의 날 구강교정 공익과학보급 대강의 무료진료활동이 연변병원 문진광장에서 거행됐다.

중화구강의학회의 요구에 따라 이번 행사는 ‘아름다운 웃음으로 인생을 알리다’, ‘과학가 정신을 고양하고 용감하게 고수준과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선두자가 되다’를 주제로 하여 마련됐다.

활동에서 구강전문가들은 시민들에게 일련의 무료 구강건강 봉사를 제공했는데 시민들의 구강 상황을 자세하게 검사하고 그들이 제기한 의문에 해답하여 시민들이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강교정 과학보급 선전자료를 발급하여 구강건강 활동에 관심

을 갖고 적극 참여하도록 시민들을 고무했다.

이 밖에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중화구강의학회의 큐알코드를 스캔해 온라인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연변대학 구강과 부주임 차봉철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구강교정은 일반적으로 치아교정을 가리킨다. 이번 구강교정 공익과학보급 대강의 무료진료활동은 과학보급의 방식으로 광범위한 대중들에게 구강교정, 구강위생 관련 지식을 선전하고 현장에서 무료진료를 제공함과 아울러 의문에 해답을 줌으로써 광범한 대중들로 하여금 구강건강 지식을 요구하고 전문가의 진료 봉사를 향유하도록 하며 교정치료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자아보건 의식을 제고시키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리전기자 /사진 연변대학 부속병원



## 지력장애인들에게 즐거움 선사



5월 19일, 34번째 전국 장애인 돕기의 날(매년 5월의 세번째 일요일)을 맞이해 연변지력장애인협회에서는 15일부터 16일까지 연길 옌지호텔에서 기념행사를 벌였다.

올해의 장애인 돕기 행사는 ‘과학기술 행복을 함께 누리자’를 주제로, 15일에는 과학기술 보급 동영상으로 삶의 질 높이기 과학지식 학습과 소득 교류 행사를 벌이고 16일에는 지력장애인들의 실정에 맞는 취미유희 운동회를 펼쳤다.

16일에 있는 취미유희 운동회에는 연변내 8개 현, 시의 60명 지력장애인 대표들이 보호자 가족, 사업 일꾼들과 함께 볼링 등 다양한 경기를 펼쳤다. 저마다 우승 따기에 열

을 올리고 있는 장내는 행사 내내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

일찍 ‘전국 장애인사업 선진개인’ 영예를 획득한 연변지력장애인협회 주석 주수삼(周树森)은 대어를 가리키며 “이분들은 전부 저의 친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그들을 보살피고 지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장애인들을 동행하여 행사에 참가한 가족들은 “장애인을 존중하고 위하는 훈훈한 사회의 온정을 느끼게 되어 감동된다. 뜻깊은 활동을 마련해준 협회에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린다.”고 입을 모았다.

/박철원특약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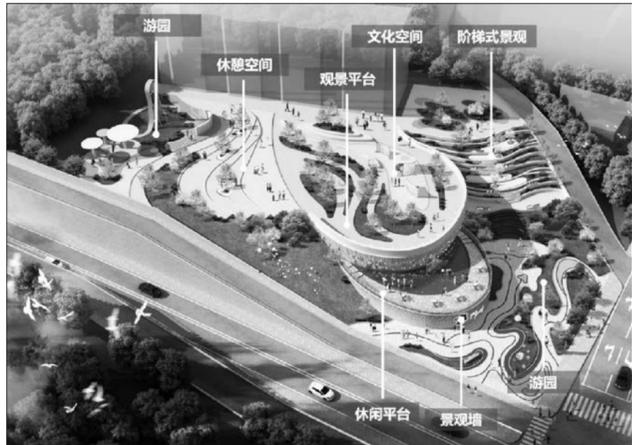


## 연길시, 카페와 전망대 있는 공원 건설한다

### 연길 석류홍 테마공원 11월초 완공

2024년, 연길시 발전 언덕은 사진이 잘 나오기로 소문나면서 연변 관광에 새로운 출채지를 추가했다. 발전 언덕의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주변 관광 부대시설의 증가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연길시정부는 광장, 전망대, 카페 등을 갖춘 4,900평방미터 부지면적의 석류홍 테마공원을 건설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 공원은 발전 언덕과 함께 연변에 온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관광 체험을 가져다 주게 된다.

5월 10일, 연길거리와 서산거리 교차점에 위치한 연길 석류홍 테마공원 건설현장에서는 단지내 전망 플랫폼의 전체 건설이 이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공원 건설을 담당하는 천우건설그룹 기술사업부 책임자 류암에 따르면 연길 석류홍 테마공원은 2023년 8월 12일 착공해 현재는 이미 총 공사량의 절반 넘게 완성했으며



석류홍 테마공원 효과도

그중 전망 플랫폼내의 카페 건설은 이미 완료돼 외벽 공사중에 있다. 다음 단계에는 광장 바닥의 포장공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카페 외관 및 공원 소품 건설 공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연길시주택도시농촌건설국 도시건

설과 김효봉의 소개에 따르면 연길 석류홍 테마공원은 발전 언덕의 북쪽에 위치하여 지형으로 보면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다. 따라서 이번 공사는 원래의 고차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계획 및 설계하기 위해 ‘사다리모양’의 레이아웃을 채택했으며 건설 내용은

계단식 경관, 전망 플랫폼, 카페, 조경소품 및 목화식재를 포함하는데 가문비나무, 펜타곤 단풍나무 및 기타 나무 등 142구루의 교목을 심으며 11월 10일에 완공될 예정이다.

전체 계획을 보면 공원은 총 3층으로 나뉘며 각 층은 독특한 조경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 층은 연길 거리 도로와 동일한 높이에 위치하여 관광객들이 소광장과 목화경관대를 출입할 수 있도록 휴식 및 관람 장소를 제공한다. 동시에 주변에는 민족 단결을 상징하고 공원의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해 많은 석류홍 테마의 조경 소품이 설치된다. 두번째 층은 경제 및 상업 수입을 이끌기 위해 시민들에게 여가 및 식사 장소를 제공하고 카페가 있는 작은 플랫폼이 설치된다. 세번째 층은 파노라마 플랫폼으로 탁 트인 시야를 통해 관광객들이 석류홍 테마와 ‘연길특화미화’가 어우러진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실생성 김성보 /사진 연길시당위 선전부



## 장춘 한 뇌성마비 아이에 네티즌 응원 물결 이어져!



患脑瘫男孩舞台摔倒 跪地仍继续朗诵获全场掌声 (A boy with cerebral palsy fell on the stage but continued to recite, earning applause from the audience.)

최근 <남자아이 넘어졌지만 무릎을 꿇은 채 랑송 이어가>라는 제목의 동영상상이 장춘의 온라인에서 많은 응원을 받았다.

애마(爱马)라고 부르는 이 남자아이는 뇌성마비로 제대로 걷지 못하다가 수년간 재활치료를 한 끝에 랑송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경연 당일 어린 애마는 음악이 흘러 나오자 총 433 글자의 작품을 랑송하기 시작했는데 한달 동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한 나머지 무대에 오르기 전 계속 원고를 들여다보면서 자신이 무대 위에서 류창하게 랑송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3분의 1 정도 랑송했을 때 애마는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관객의 마음을 좋게 한 이 이번은 그의 발뒤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는 음악 절주를 따라가지 못할까봐 아버지에게 자신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손짓하고는 끝까지 랑송을 이어갔으며 곳곳하게 경연을 마쳤다.

무대 아래에서는 큰 박수가 터졌고 애마의 어머니는 아들이 넘어지는 순간 눈시울을 붉히며 아들의 경연 과정에 록화했다고 한다. “아이는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좋은 순위를 받을 수 있었냐고 물었다. 나는 아들에게 넘어졌는데도 경연을 끝까지 완성이 정도

로 강하고 훌륭하다고 말해주었다. 그는 자존심이 매우 강해 나는 때면 격려해주고 있다.”

애마의 어머니는 경연 당시 애마는 긴장감 때문에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면서 “그동안 이와 류사한 공연을 훌륭하게 마칠 수 있었고 5분 동안 무대에 서는 것은 문제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애마가 넘어질까봐 번마다 손에 땀을 쥐고 공연을 보는데 사실 그가 넘어지는 것은 너무 정상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애마는 이번 랑송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인민넷 - 조문판

## 퇴역군인, 교통사고 당한 로인에 도움의 손길

5월 6일, 연길시 명대아파트단지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길가던 한 로인이 부상을 입었다. 이때 한 녀퇴역군인이 즉시 120 응급구조에 연계를 취하여 로인을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하였다.

조아남은 퇴역군인으로 현재 연길시공공사업부사중심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날 점심, 마침 비가 내렸는데 조아남은 직장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로인이 다리에 부상을 입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목격했다. 그녀는 인줄 달려가 우선으로 비를 막아주고 로인을 보살피는 동시에 120 응급구조대와 로인의 가족들에

게 연락을 취했다.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자 조아남은 구급일꾼들과 함께 로인을 구급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모셨다. 병원에 도착하자 조아남은 로인을 도와 주동적으로 문진수속을 대신 해주고 의료비용까지 대신 납부했다. 로인의 가족들이 병원에 도착한 후애야 조아남은 안심하고 병원을 나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다.

“퇴역군인으로서 군중들을 구조하는 것은 마땅한 책임입니다.” 비록 군복을 벗었지만 군인의 초심과 본성은 결코 말라가 우산으로 비를 막아주고 로인을 보살피는 동시에 120 응급구조대와 로인의 가족들에

/정현관기자